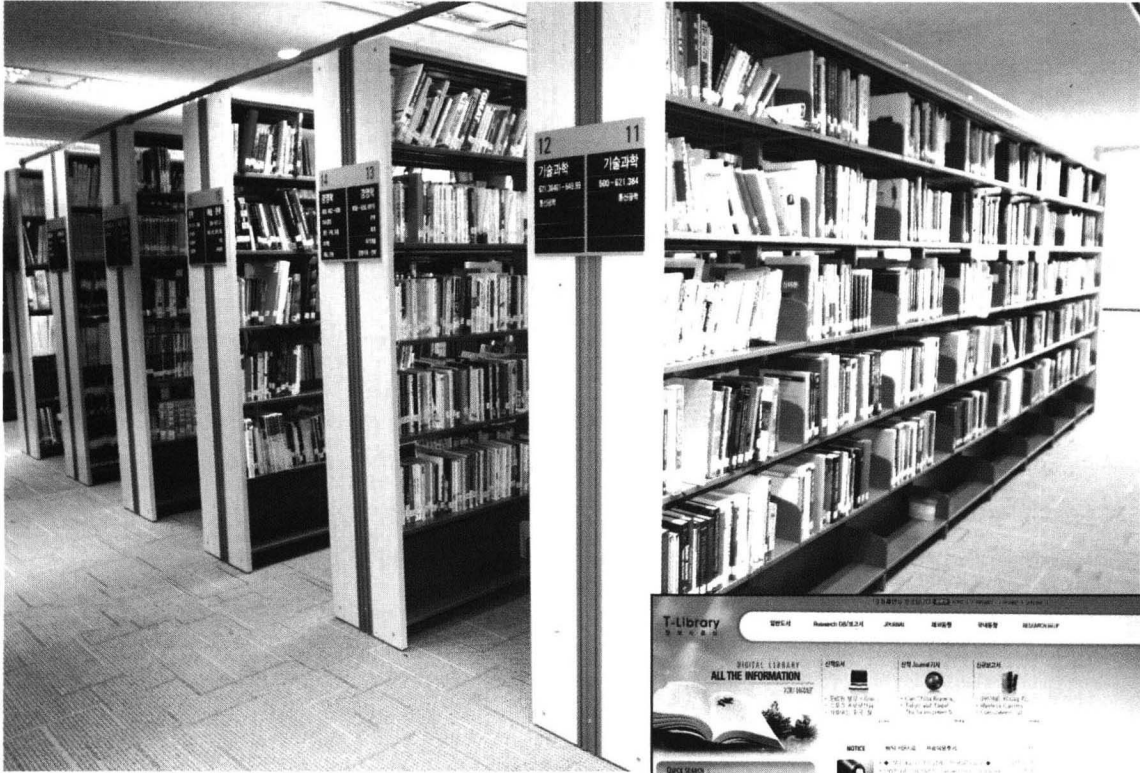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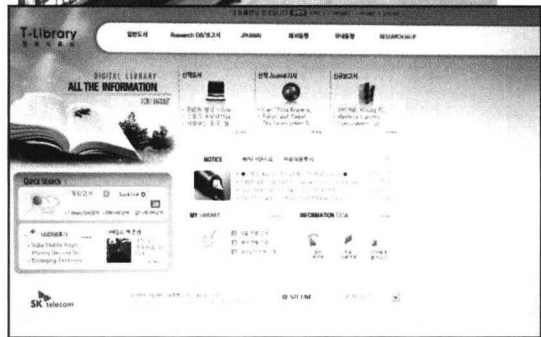


SK텔레콤 정보자료실

T-라이브러리와 정보자료실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보고(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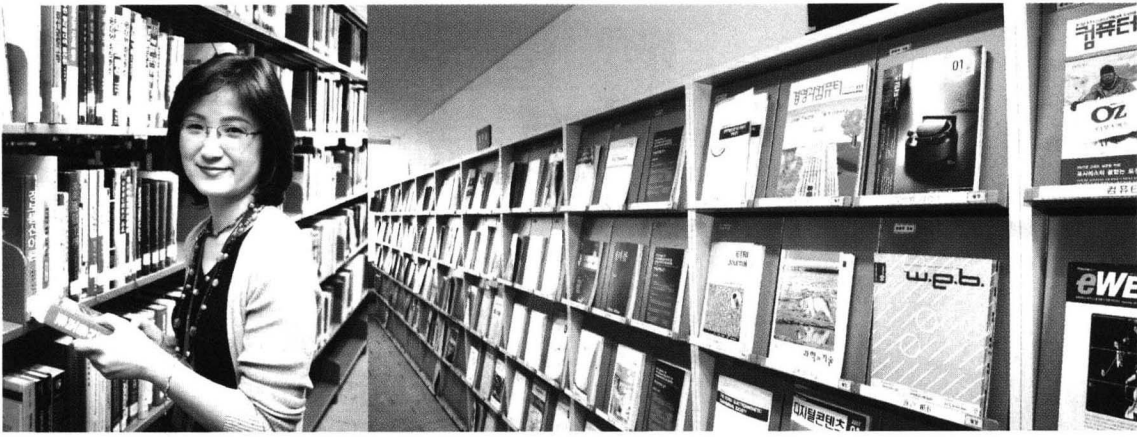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창구인 T-Library ▶



SK텔레콤의 사내사이트인 'T-라이브러리'는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창구이다. 도서의 예약, 대출뿐만 아니라 일반도서, 업무에 필요한 시장조사 리서치와 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임직원들은 책을 읽고 난 후 서평을 추천코너에 올리고, 이용했던 콘텐츠 후기를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T-라이브러리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온라인 도서관인 T-라이브러리와 오프라인 도서관인 정보자료실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도서관 이상의 개념을 담고 있다.

정보자료실에서 책을 구입해 T-라이브러리에 올려놓으면 금세 예약이 줄줄 이어질 정도로 사용자접근이 용이하다. 《공중그네》 《룬테일 경제학》 《여자경제학》 《부의미래》 《밀리언 달러 티켓》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판단력강의 101》 《웹2.0 경제학》 《웹진화론》 등은 최근 SK텔레콤 직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책들이다. 이 중 《룬테일 경제학》과 《웹진화론》은 김신배 사장이 읽고 추천한 책으로 임직원들에게 독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신배 사장은 소문난 다독가라 4천5백여 명의 임직원들이 긴장할 정도이다. 정보자료실 최세인 대리는 “사장이 읽으신 책은 교양수준을 넘어 임직원들이 읽은 후 인사이트를 뽑아보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와인 관련 책도 인기가 높다.

서울 남산이 훤히 보이는 정보자료실은 책과 함께 휴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2만5천권의 장서들은 분야별로 DDC 체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225종의 잡지를 시사, 교양, 경영경제, 통신 등 분야별로 비치해 놓았다. 하루에 정보자료실에 방문하는 직원들은 150여 명, 대출은 190건 정도라 한다. T-라이브러리



▲ 정보자료실 최세인 대리는 임직원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 225종의 잡지를 분야별로 비치했다.

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하루 550명 정도이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주고받거나 다운로드하는 횟수는 적게는 1,500건에서 많게는 2,000건 정도라 한다.

한 달에 단행본 300~400권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데 경제경영서, 자기계발서, 교양분야, 소설 순이며, 대출순은 소설장르가 많은 편이다. 통신회사는 다른 산업과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게 최세인 대리의 분석이다. 업무관련 자료도 대출이 높지만 역사, 미술, 음악, 여행 등 문화 관련 서적의 대출빈도가 점차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침 예약한 책이 정보자료실에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정보자료실에 방문한 인터넷마케팅팀 이경수 매니저. 그는 2년간 450권을 읽었을 정도로 사내에서 베스트 독서가로 불린다. 《안벽에의 충동》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인생》 등을 손에 쥐고선 해맑은 웃음을 짓는다. 정보자료실에서는 이경수 매니저처럼 베스트 이용자를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독서향상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베스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대출자, 온라인이용자, 몇 번째 이용자, 강력 도서추천 등 매달마다 주제를 달리 정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 사내 베스트 독서가인 인터넷마케팅팀 이경수 매니저는 2년간 450권을 읽었다.

올해 들여놓은 '무인대출반납기'는 정보자료실의 역할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책을 대출하고 반납처리를 하는 시간에 임직원들의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18층에 위치해 있는 정보자료실에서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서가를 재배치 해 업무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쉼터 공간으로 변화시켜 '전망 좋은 서재'를 만들 계획이다. **속보**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신착도서 코너와 김신배 사장이 기증한 책들

▼ 정보자료실의 새로운 가족이 된 무인대출반납기

